

‘모바일 월드컵’ 개막

‘모바일이 전부다’ 슬로건 아래 2500여 기업 참가 5G·VR 등 최신 스마트폰·통신기술흐름 한눈에

22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막한 세계 최대 모바일·이동통신전시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16’의 화두는 단연 모바일이다. 세계이동통신사연합회(GSMA)가 주최하는 이 행사는 올해 20회를 맞았다.

MWC는 애초 이동통신사들이 모여 최신 기술과 사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으나 정보통신기술(ICT) 흐름이 모바일로 넘어오면서 참가 기업과 행사 규모가 커졌다.

올해 MWC는 끊임없이 성장하는 모바일 산업을 반영해 슬로건을 ‘모바일이 전부다’로 정했다. 이번 MWC는 세계 2500여 기업이 참여하는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진다.

매년 세계 10대 대형 통신사업자를 비롯해 통신 네트워크 장비, 통신 솔루션, 모바일 메신저 기업 등 전 세계 다양한 IT기업이 출몰한다.

이번에는 차세대 통신 서비스인 5G와 가상현실(VR)이 관람객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할 전망이다. IT와 자동차 산업이 만난 컨버티드카 부스도 자동차의 미래

모습을 살피게 한다. SK텔레콤과 KT는 행사 기간에 각각 5G 시연 최초 기록과 재난망 통신 기술을 놓고 경쟁한다. 5G의 경우 기존 통신 규격인 LTE-A보다 80배 빠른 20Gbps 이상의 속도를 구현해 5G 리더 이미지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다.

장동현 SK텔레콤 사장과 황창규 KT 회장도 직접 스페인으로 날아와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맹회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고, MWC 행사장 부스를 둘러본다. 세계 유수 파트너사를 일일과 릴레이 미팅도 한다.

다만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은 CI 헬로비전 인수합병을 비롯한 국내 현안을 챙기기 위해 참석하지 않는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도 MWC에 올 예정이었지만, 북한 이슈로 일정을 취소했다.

가상현실(VR)도 MWC의 화제 콘텐츠 중 하나다.

삼성전자는 MWC에서 역대 대표 모바일 기기를 VR로 보여주는 상영관을 운영하고, 최신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S7과 연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16’은 25일까지 열린다

계된 다양한 VR 콘텐츠를 시연한다. SK텔레콤과 KT도 일반 관람객이 VR 기기와 콘텐츠를 즐길 수 있게 체험관을 운영한다. KT는 평창동계올림픽 파트너사로서 VR 기기를 통해 실제 평창에 온 듯한 느낌을 연출할 예정이다.

참신한 아이디어로 무장한 국내 중소기업도 MWC에 데뷔한다. 코트리아 중소기업청, 미래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이 지원하는 중소기업 150여 곳이 MWC에 전시 부스를 꾸린다.

한편 올해 MWC에 모바일 메신저 인사

들이 대거 참여해 눈길을 끈다.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는 3년 연속 MWC 기조연설 무대에 선다. 올해 주제는 VR의 전망이다. 파벨 두로프 텔레그램 대표도 MWC 기조연설에서 모바일 혁신 서비스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정주환 카카오 부사장은 25일 열리는 온디맨드(수요지향형 서비스) 세션에서 ‘카카오 택시의 성공’을 주제로 연설한다. 정 부사장은 카카오택시 기획부터 출시까지 이끈 인물이다.

MWC 2016은 25일까지 열린다.

/김민근기자

개인정보활용 접근 장벽 낮춰

금융회사·핀테크 업체의 빅데이터 활성화 위해 익명화 지침 마련

금융회사와 핀테크 업체의 빅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장벽이 대폭 허물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은 22일 개인정보 활용 지침을 포괄적으로 마련 필요할 경우에만 제한을 두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등은 이날 서울 중구 백커스클럽 16층에서 열린 ‘빅데이터 활성화 추진 간담회’에서 개인정보의 익명화에 대한 지침과 보호규정을 새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금융위는 익명 정보를 활용하고, 업종 사이의 교차 분석 등이 가능토록 신용정보법령을 올해 안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신용정보원은 신용정보법령이 개정되기 전까지 통계청 표준산업분류표 체계 등을 참고해 정보를 분류하고 분석해 상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또 법령 개정 이후에는 금융회사와 핀테크 업체가 보유한 정보를 결합하고 분석

한 통계결과를 공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금융보안원은 법령이 개정된 뒤 즉시 신용정보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익명화 정보에 대한 정의, 보호조치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보안원은 비식별 정보 수준을 판단하는 ‘익명화 평가위원회’를 설치해 자체 운영이 어려운 금융회사를 지원하고, 익명화 지수도 개발해 적정성을 평가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보의 비식별 정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익명화 지침은 오는 3월부터 금융보안원 주도로 금융회사, 개인정보보호 전문가 등이 참여해 상반기까지 마련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인신용정보의 철저한 보호를 전제로 지침을 마련할 것”이라며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신용정보법령 개정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김민근기자

‘링크트 오픈 데이터 컨퍼런스’ 개최

국립중앙도서관, 사물인터넷 기술과 결합해 맞춤형 데이터 제공

귀농을 결심한 A씨가 어떤 작물을 재배해야 할지 고민이라면? 사물인터넷 기술과 링크트 오픈 데이터(LOD: Linked Open Data)를 융합, 초보 귀농을 위한 작물을 추천받을 수 있다.

사물인터넷 디바이스를 통해 센서가 측정할 토지의 온도, 습도, 위치 데이터와 기상청의 강수량, 풍량 데이터를 융합하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작물 기본정보, 귀농 추천 작물정보를 합쳐 비슷한 환경에서 작물이 용이하고 고소득에 적합한 귀농 작물을 추천받을 수 있는 것이다.

날씨의 변화, 교통 상황, 웹 검색 등 현대인들은 하루에도 수많은 데이터들을 만들고 사용하며 생활한다. 복잡하고 방대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더 특화된 데이터가 필요한 셈이다.

링크트 오픈 데이터는 연결과 공유를 통해 데이터의 웹을 만들고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여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다. 누구나 자유롭게 공유하고 활용 가능한 데이터를 웹에서 서로 편리하게 연결, 웹을 하

나의 데이터베이스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구조화된 형식으로 발행한 데이터를 가리킨다.

국립중앙도서관(관장 임원선)이 생활 속 링크트 오픈 데이터를 느낄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 25일 오전 9시30분 국제회의장에서 국내 LOD 관련 전문가와 실무자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링크트 오픈 데이터 컨퍼런스 2016(LODAC)이 열린다.

‘생활 속의 데이터, 링크트 데이터, 오픈 데이터’를 주제로 오성균 교수(성균관대학교 문헌정보학과)의 기조강연 ‘아이스쿨, 데이터 사이언스 앤드 다스(School, Data Science, and DaaS)’를 시작으로, 학계, 민간 공공기관 전문가 13명이 나서 ▲생활 속의 데이터 ▲LOD 활용 및 사례 ▲데이터 활용 등에 대한 주제발표를 한다.

국립중앙도서관은 ‘LOD가 실제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데이터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도 폭넓게 고찰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민근기자

현대·기아 등 제작결함차량 리콜

국토교통부는 22일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르노삼성자동차·한국닛산·진일엔지니어링·BMW코리아 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한다고 밝혔다.

현대차 기아차에서 제작·판매한 부산, 포르테 승용자동차는 자동변속기 오일쿨러(Oil Cooler) 호스 손상으로 자동변속기 오일이 누유돼 변속기 작동 불량 등이 발생했다.

리콜대상은 2010년 8월 1일부터 2010년 10월 31일까지 제작된 부산 승용자동차 9251대, 2010년 8월 27일부터 2010년 11월 11일까지 제작된 포르테 승용자동차 5675대다.

르노삼성차에서 제작·판매한 SM5 LPG 승용자동차는 LPG 저장탱크 내부의 연료레벨게이지 작동불량으로 연료 잔량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운전자에게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4년 12월 22일부터 2015년 7월 6일까지 제작된 SM5 LPG 승용자동차 3774대다.

한국닛산에서 수입·판매한 알티마 승용자동차는 차량 후드의 잠금장치 결함으로 주행 중 후드가 열릴 가능성이 제기됐다. 리콜대상은 2012년 03월 06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제작된 알티마 승용자동차 5354대다.

진일엔지니어링에서 수입·판매한 XW300 등 12개 차종 화물자동차는 차대번호와 자기인증표시가 미부착 됐다. 리콜대상은 2011년 10월 24일부터 2015년 10월 19일까지 제작된 XW300 등 12개 차종 피검인자동차 1166대다.

BMW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C650 GT 등 2개 차종 이륜자동차는 앞바퀴 브레이크 호스의 제작결함으로 브레이크액이 누유될 경우 브레이크 성능이 떨어질 가능성이 나타났다.

리콜대상은 2012년 03월 20일부터 2015년 06월 09일까지 제작된 C650 GT, C600 SPORT 이륜자동차 1250대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 내용을 자비로 수리하면 제작사에 수리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현대차(080-600-6000), 기아차(080-200-2000), 한국닛산(080-010-2323), 진일엔지니어(081-975-3307), BMW코리아(080-269-5005)로 문의하면 된다.

/김민근기자

쉐보레, 맨유 마스코트 어린이 공모

영국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FC의 공식 스폰서 쉐보레(Chevrolet)는 오는 3월 8일까지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맨유의 정규 리그 경기 마스코트로 초청될 특별한 어린이를 모집한다.

지난 2012년부터 맨유의 공식 후원사로 참가하고 있는 쉐보레는 올해부터 새로 시작된 ‘스타팅 11’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맨유의 공식 마스코트가 되어줄 11번째 어린이를 한국을 포함한 중국, 미국 등 전 세계에서 공모한다.

만7세 이상 11세 이하의 아이를 가진 부모는 응모기간 중 공식 응모 홈페이지(www.ChevroletFC-XI.com)를 방문해 축구가 자녀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킨 감동적인 이야기와 맨유의 11번째 마스코트가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400자 이내로 작성해 참가할 수 있다.

당첨자는 3월 21일에 발표되며, 선정된 어린이는 올 가을 영국 맨체스터 올드 트래포드에서 개최되는 맨유의 홈경기에 초대되어 어린이 마스코트로 참가하는 특별한 경험을 누릴 예정이다.

팀 마호니(Tim Mahoney) 쉐보레 글로벌 마케팅 책임자는 “각국의 어린이들이 맨유의 올드 트래포드(Old Trafford) 경기장에서 선수들과 함께하는 꿈을 후원함으로써 맨유 후원의 의미를 전 세계에 인상 깊게 알리는 한편, 매 시즌 주요 경기에 새로운 걸음으로 이어갈 것이다”고 밝혔다.

/문정근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ivs.or.kr *전자우편 : jivs@hanmail.net

